

“초등학교에 남자 선생님이 없어요”

광주·전남 올 합격자 중 남성 20% 그쳐...성비 불균형 대책 마련 시급

교육대 졸업생 여성 비율 높고 필기시험도 여성 우세

일선 학교 여교사 비율도 광주 78%·전남 60% 달해

남교사 할당제 등 공감 속 ‘역차별 논란’에 시행 어려워

광주와 전남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고사 합격자 가운데 남성이 20%대에 불과해 남녀 성비 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녀 합격자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게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나 남성 할당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광주와 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이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공립 유·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가운데 남성 비율이 광주는 5%(46명 중 2명), 전남은 27%(396명 중 106명)에 그쳤다. 특히 유치원 교사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광주 특수 1명, 전남은 1명으로 극소수였다.

이 같은 현상은 교대 졸업생과 임용시험 응시자 가운데 여성이 많은 게 가장 큰 이유다. 2021학년도 임용시험 응시자의 남녀 비율은 대략 3대7로 여성이 배이상 많았다.

필기시험에서 여성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추세도 이유로 꼽힌다. 올해 시험의 경우 광주와 전남이 각각 9대1과 1.3대1로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해 여성 합격자 비율이 더욱 높았다.

여성들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학교현장의 남녀 교사 비율도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사 중 남성 비율은 28.3%, 특히 초등학교는 21.9%에 그쳐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의 경우 2020년 9월 기준 관내 초등학교 전체교원 4570명 가운데 78%에 달하는 3584명이 여성으로 조사됐다. 전남도 같은 기간 기준 초등학교 전체 교사 5672명 가운데 여성 교사는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교사를 배출하

는 교육대 졸업생의 여성 비율이 높다보니 자연스럽게 여교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남성 교사가 맡는 게 더 수월한 보직의 경우에서도 여성 교사가 맡게 되는 학교가 많

다”고 전했다. 특히 업무량이 많은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 보직을 남성들에게 맡기고 싶어도 없다보니 여성들이 맡는 학교도 많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남녀 성비의 불균형이 사회 문제화될 지 이미 오래라는 것이 중론이다. 더욱이 광주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불균형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교원 양성을 위한 학교현장에서부터 남성 지원자가 보다 많이 확보되도록 파격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남녀 성비 불균형에 대한

개선책으로 남교사 할당제(30%)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각 시·도 교육청과 정치권에서도 남녀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녀 합격자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지 못 하게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역차별 논란’ 등 실제 시행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사의 남녀 성비 불균형은 학생들 성 정체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균형 잡힌 학교현장 조성을 위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그래도 설은 쇠야조 설 명절을 열흘 앞둔 2일 오후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 5일장이 설 제수용품 준비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교사 자격 얻으려면 성인지 교육 이수해야

앞으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다니는 예비 교원은 의무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해야 교사가 될 수 있다.

교육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교육대·사범대생은 성인지 교육을 일정 횟수 들어야 교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전까지 예비 교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 권고 사항이었다.

성인지 교육은 교대나 사범대 총장, 학장 등이 실시한다. 재학 중에 4년 이상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3년 이하 교원양성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2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이 강화된 건 최근 불거진 n번방 사건과 스톨미투로 교사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번방 사건에 가담한 교사는 총 8명으로 파악돼 파문이 일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호남대 ‘통일강좌 사업’ 광주·전남 유일 선정

호남대학교의 ‘평화통일과 글로벌리더십’ 교과목이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주최한 2021년 1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강좌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전국 20여개 대학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대학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이 교과목 강의에는 호남대 교양융합대학의 남지연 교수를 비롯해 서 전 통일부 차관을 역임한 호남대 행정학과 김형석 교수와 통일교육원의 통일 관련 최고전문가 9명이 팀티칭으로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무등산 공유화 원칙에 동의”

신양파크호텔 법인 대표 “협의 기간 줄여달라”

신양파크 호텔 부지에 고급 연립주택 건립을 추진하던 호텔 소유주인 (주)대양인투스 측이 무등산 공유화 원칙(광주일보 1월 26일 7면)에 동의하고, 공유화 협의기간 내 개발행위를 철회하기로 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에 참석한 신양파크호텔 법인 대표는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광주시는 “공유화는 단순히 매입 결정

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유화 이후의 활용화 방안까지 내놓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협의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대양인투스 측은 협의기간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협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정 협의회는 오는 5일 공유화 방안을 광주시에 정식으로 건의하고, 9일 최종 3차 회의를 거쳐 협의회 결과를 이용섭 시장과 함께 공표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남구 먹자골목 ‘살맛 나겠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은누리 상품권 유통 등 활성화 월산5동 군분로·주월동 빅스포 뒤 상가·백운시장 일대 해당

광주시 남구가 영세 점포가 밀집한 먹자골목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은누리 상품권 사용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남구는 2일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0㎡ 범위 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당이나 카페,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한 동네 먹자골목은 전통시장과 달리 상점가로 인정되지

않아 은누리 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비롯해 시설개선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관내 골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시에는 구역의 특성과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골목형 상점가 내 소상공인의 은누리 상품권 가맹점 가입도 가능하다.

현재 남구 관내에서는 월산5동 군분로 일대를 비롯해 주월동 빅스포 뒤 상점가, 백운시장 일대 등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병내 구정장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시설개선 현대화 사업을 비롯해 은누리 상품권 가맹점 가입 등 기존 전통시장과 똑같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청와대(5년)·강원랜드(3년) 납품점

다향골비

대표 박희순·이용철

마음의 거리 좁히는 Best

코로나 극복하는 명절!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주문하러가기

굴비 (가정용)



70,000~130,000원

굴비 (선물용)



100,000원부터~

보리굴비



80,000~100,000원

문의 ☎ 061-356-6798

☎ 010-5356-4990